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의 경제 및 전자산업 동향 개요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동향

'94년 OECD 회원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2.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91~'93)의 경제 성장률이 겨우 1.3%였음과 비교해 볼때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95년의 경우 이러한 성장세는 약간 둔화되어 2.4%, '96년 2.4%, '97년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4.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은, '91년 2/4분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경기호황이 성숙기에 달함에 따라, '95년에는 3.1%, '96년에는 2.7%, 그리고 '97년에는 2.0%로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 증가율은 특히나 '96년 하반기서부터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빛이 늘어났으며, 인력시장이 불안하고 실질 봉급성장률이 낮기 때문이다. '93~'95년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투자부문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금융정책도 보다 더 타이트해져 성장률은 둔화될 것 같다.

'92년부터 '95년까지 지난 4년간 0.5%의 낮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던 일본의 경기는 '96년 들어서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금융부문의 약화와 급작스런 엔화강세와 같은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투자와 소비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경비지출 증가, 그리고 아주 낮은 금리로 인해 GDP성장률 '95년의 0.5%에서 '96년에는 1.7%, '97년에는 2.8%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GDP 성장률은 '94년의 2.9%에서 '95년에는 2.7%, 그리고 '96년에는 2.4%로 둔화되었다가 '97년에는 2.8%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신뢰도는 통화가치의 과대평가와 불안정으로 인해 낮은 상태이다. 또한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되어 가고 있고 소비지출이 많아져 가고 있는 관계로 인해 '96년 말부터 '97년 동안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의 경제는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화약세로 인해 몇몇 회원국들의 수출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내수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실업률 증가와 임금하락으로 인해 가계지출이 감소된 것이 주요인이다.

독일의 실질GDP 성장률은 '95년 2.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마르크화의 가격상승은 수출에 영향을 미쳐 증가율이 세계 무역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3년 2.2%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영국은 불황에서 벗어나 의외로 '94년 3.9%의 빠른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물론 향후 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2년간은 커다란 경기불황의 위험도 없어보인다.

'95년 수출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투자증가율은 감소될 것이며 가계지출도 약간 낮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GDP성장률도 둔화되어 '95년과 '96년에 2.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국들의

GDP 성장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95년의 7.8%에서 '96년에는 7.5%, 그리고 '97년에는 6.9%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성장률은 멕시코와 브라질이 4%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95년의 0.3%에서 '96년에는 3.2%, 그리고 '97년에는 4.1%로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아공은 현재 3%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낮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있는 OECD의 경우 GDP 성장률은 '95년 2.6%, '96년 2.9%로 예상되어진다. 과거의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급등 현상은 강력한 경쟁체제로 인해 대부분 없어졌다.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자산업 전망

서유럽, 아메리카, 일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30개국들의 전자기기 및 부품시장은 '93년에는 6,940억불, '94년에는 7,760억불이었다. 환율변동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보면 실질성장률은 7.6%였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처음 증가한 것으로 '93년의 경우 0.1%, '92년 5.4%, '91년 1.3%, 그리고 '90년에는 0.3% 감소 하였었다.

'95년 실질성장률은 7.2%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94년 12.57%의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

고 있는 전자 데이터처리 시장의 성장률은 '95년에는 그 신장세가 약간 둔화되어 8.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가전제품의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는 일본시장이 회복된 점이 주요인이다. 미국의 군수프로그램 예산삭감이 다시 원상태로 되었으며, 기타 여러나라들의 통신시장 규제가 완화되어 성장률이 다소 올라갔다.

'96년 성장률은 상당히 내려가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또한 이후 3년 동안도 조금씩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시장은 상당히 부양되어 '94년 9.0%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는 전자데이터 처리부분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데이터 처리 부분의 성장률은 19.3%를 기록하였다. 전산장비와 부품분야 13% 이상 증가되었는데 통신기기와 레이더부분은 휴대폰, 방송장비, 그리고 무선통신기기의 성장세 둔화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5% 이상 감소되었다.

미국 국방성은 경기가 상당히 활황되어 '95년에 전체성장률이 9%를 초과할 것으로 보았었다. 전자데이터 처리 부문은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IC는 다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96년도 미국시장은 전분야에 걸쳐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황세가 예상되는 컴퓨터와 관

련기기분야는 IC 시장보다 실질 성장률면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시장 성장률은 3.6%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은 이 수치가 약간 감소되어 2.5% 가량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과 '93년에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하였던 일본시장의 경우 '94년에는 몇몇 분야에서 시장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8% 이상 감소하였으며 정밀기기와 통신장비도 이와 비슷한 수치로 감소한 반면, EDP기기가 12% 가까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는 4.1%의 성장률을 보였다.

'95년에는 대부분의 전자분야가 약간씩 성장하였으나 아직 경기는 불투명하여 성장률은 매우 완만한 상태이다. 향후 4년간 일본시장은 매년 5% 정도의 안정된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과 같은 아시아 태평양국들의 전자시장은 '94년에 전반적으로 15%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95년에도 이어져 13%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96년에는 8.5%대의 약간 낮은 증가율이 전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때 태국,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시장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상

가폴과 대만 특히 홍콩 시장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94년에 서유럽시장은 4.4% 증가하였는데 지난 4년간 처음으로 실질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95년에도 가전시장의 경기 회복과 EDP기기의 고성장으로 인해 4%가량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장률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나 그 폭은 완만하며 '99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기기와 부품의 생산은 '93년의 7,710억불에서 '94년에 8,280억불로 7.3%의 실질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증가세는 '9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96년에는 IC와 컴퓨터기기의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5.3%의 조금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최대의 생산국으로 '96년 총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한

다.

'94년 생산은 7.5%, '95년에는 8.9% 증가되었으나 '96년은 3.6% 증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생산은 전체 생산의 29%를 차지하는데 '93년에는 6.3% 감소하였으며 '94년에는 겨우 1.5% 증가되었다.

그러나 '95년에는 성장이 향상되어 '96년에는 5%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일본의 생산률 감소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국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었으며 '93년에는 17.6%, '94년에는 19.8%의 성장률을 구하였다.

반면 일본의 생산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에서 저가, 저급의 제품 생산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국들의 '96년 생산증가률은 1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현재의 전

체 생산 증가률은 15% 이상이다.

'93년에 30여개국이 8,100만대의 CTV를 생산하였는데, 이러한 CTV생산은 '96년에는 1억 350만대로 증가되었다. 같은 기간에 일본의 CTV생산은 1,080만대(전체 생산의 13.3%)에서 810만대(전체 생산의 7.8%)로 감소되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CTV생산은 '93년의 3,490만대(전체 생산의 43.1%)에서 '96년에는 5,170만대(전체생산의 49.9%)로 증가되었다.

VCR의 경우 전체생산은 '93년의 5,400만대에서 '96년에 6,300만대로 증가되었는데 점유비는 위의 CTV와 거의 비슷하다.

일본의 시장 점유율은 37.1%에서 22.7%로 떨어진 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장 점유율은 48.1%에서 63.5%로 증가되었다.